

UPASIKA PRAISED CONTENTS

02	발행인 칼럼 김선옥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04	이슈 리영자 보살행하는 곳이 바로 보광여래의 정토
06	문화살롱 김원숙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과 〈한국에서의 학살〉
08	불교와 여성 최형미 불교와 섹슈얼리티 『여성 붓다를 만나다』 한울 권
10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형난옥 청정무구한 깨달음의 도량 금상선사와 일법스님
14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화이부동(和而不同), 사심 없는 여성군자의 리더십, 이영숙
17	현장스케치 김영희 여성불자 108인회 제9차 환영 워크숍
20	특별활동 보고 이주현 2021 자비나눔 선물
22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신임 임원
24	사무국 소식
26	산하기관 센터 소식
29	회원 동정
31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1년 78호

[발행인] 김선옥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편집위원] 형난옥, 김경숙,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빌딩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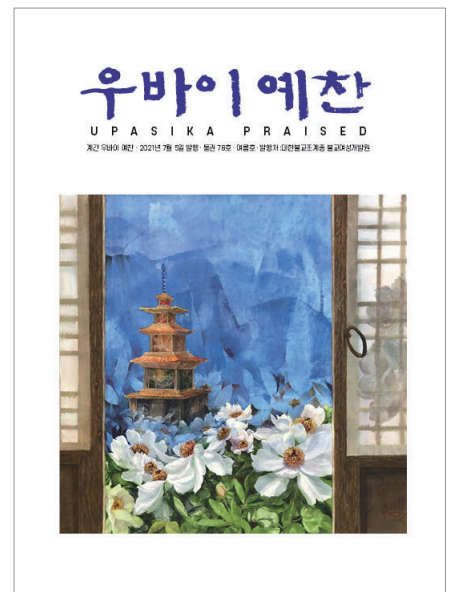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품설명]

●작품명 : 무릉도원

●작가 : 하진희

[작가프로필]

한국미술협회 이사

개인전 4회 / 단체전 11회

한국수채화 공모대전 우수상수상(2018)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수처작주(隨處作主)입처개진(立處皆眞)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당나라 임제선사의 법어로 “내가 처해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며 서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이 진실 된 것이다”라는 뜻으로 흔히 자신의 삶에 주인공으로 살거나, 권할 때 많이 사용한다.

법정스님은 ‘무소유’에서 수연스님을 천하의 주인공으로 회상하시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수연스님이 자리에 굶은 나사못이 빠진 것을 보고 당신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내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아하! 그는 천하의 주인이구나 생각하신 것이다.

어느 호텔 사장님은 호텔 로비에 떨어진 휴지조각을 남 시키지 않고 직접 주워 버렸다.

그 순간 그 호텔은 그의 것이 되었다. 어느 귀촌자는 앞산 소나무를 가리는 잡목을 정리했고 그 순간 그 산은 그의 것이 되었다.

이렇듯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주인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객인 것이다.

오래전 대학교 시절 모교수님은 학기 중 토요일 오후, 방학 중에는 보름간 매일4시간씩 인문학에 관한 강의를 하셨다. 하루는 어느 학생이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십니까? 특별히 강의를 받는 것도 아니데” 하고 질문했더니 교수님 말씀 “내 민족, 내 후배들을 내가 가르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라는 말씀에 우린 모두 할 말을 잊었다. 순간 우주가 환한 기분이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렇다. 우린 모두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런 주인의 마음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다.

‘생활속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자비나눔 모연에 225명이 동참해 18,598,000원을 모금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 장병들과, 청소년 교화단체인 고봉 중고등학교 학생,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또한 봉사자들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선물꾸러미 속에는 간식이외에도 이주현 부원장이 보시해준 소책자 『불교란?』도 함께 동봉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제 이 행사는 2011년 시작해 10년째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교여성개발원의 연례적인 전통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니 이 모두가 주인 된 마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는다.

한편 6월4일에는 2019년 선정한 9차 108인 환영 행사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작년에도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루어지다가 이번에 하게된 것이니 의미가 컸다 할수 있겠다. 이날 김연호(제천 ‘우리는 선우’) 지회장님의 열정적이고 진심이 담긴 수행 이야기는 모두의 공감을 얻어 우리의 신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9차 도반들과 만남, 선배차수님들과 만남도 좋았다는 평이며 이런 일을 계기로 불자로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 등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어 또 하나의 여성불자 나눔 바자는 여성불자108인회 주관으로 6월10, 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바자였다.

나눔 바자는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한 이후 6월 10,11일 오프라인 행사까지 약 3월간 108인회 임원들과 각 차수장님,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목표액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일련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주인이었으며 너, 내가 구분없는 보살의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 평등이라고하는 우리의 목표와 공동체 의식으로 더 발전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

주인 되는 삶은 이렇게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언제나 구경하는 객의 입장에서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때 그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인이 될 때 온 우주가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인 것이다.



보살행하는 곳이 바로 보광여래의 정토

21세기라는 오늘의 시점에서 종교로서 불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인류의 수명은 점차 길어져 백 세를 넘기리라는 추정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비약적 발전은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다가서고 있다. 과거 20세기라는 힘겨운 세월을 견뎌온 여성들 특히 불자 여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출가와 재가를 뚜렷하게 차별 짓는 교단 구성원들의 일반적 통념은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무척 우려스러운 데가 있다. 일찍이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한국 땅에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무시하고 이천 년 전 관행을 전통이란 구실로 아직도 유지 보존하려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에 근거하는지 묻고 싶다.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다. 처음 필자가 발심한 것도 대각사에서 금강경 설법을 들은 것이 계기였다. 이 경 제23품에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무상정등정각(아늑다라삼막삼보리)이라고 이름한다.”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세기 이래 인류 역사는 어느 곳에서나 남녀평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화두가 되어왔다. 서양 정신분석학자 칼 융 박사는 인간은 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심층에 내재하고 자신의 현실적 경험과 행위(불교의 業)에 의해 하나의 특성이 개발되어 남·여로 나뉜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기본적 지식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아직도 불교 교단에는 편향된 의식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불자의 궁극적 목적인 성불이라는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고 싶다. 전통적으로 대승불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성불을 부정하는 히나야나(소승)불교를 이 시점에 도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른바 비바사나 수행에만 열중하는 모임이다. 스스로 개인의 안심입명을 추구하기 위한 수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불교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하고 중생 즉 많은 이웃 사람을 떠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불을 지향하는 사후서원을 암송하는 이유이다.

법화경 권지품13에 여성성불을 소개한다. 이모인 마하푸라자파티 비구니는 보살도를 행하고 성불한 이름이 일체 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이고 라홀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는 보살행을 닦고 큰 법사가 되어 불도를 갖추고 성불하는데 이름은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라고 한다.

그리고 재가 여성 불자의 성불을 인정하는 경전은 승만사자후일승경(僧鬘獅子吼一乘經)이다. 묘법연화경과 함께 여성 성불을 나타낸 대표적 대승경이다.

신라에 불교가 유입되던 때부터 유행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신앙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재가여성이던 당시 여왕들의 이름에도 보이는 것은 상류사회의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깊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왕가의 여인들이 출가한 예뿐만 아니라 불자로서의 깊은 자각 속에서 생활한 여성도 있다. 조선조의 폐불훼석으로 억압받던 유교국가에서 여성의 몸으로 승과제도(僧科制度)를 부활하고 불교중흥을 기도한 용감한 문정왕후(文定王后, 明宗의 어머니) 같은 대보살도 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된 오직 문정왕후의 원력 때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살행하는 곳이 바로 보광여래(普光如來)의 정토라는 승만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가여성도 성불한다는 대승불교의 승만경은 대승여래장사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내용이다. 스스로 승만부인이 열 가지 서원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행법이다. 한마디로 내구보리 외화중생(內求菩提 外化衆生)이다. 마음으로 정법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주변의 모든 이웃을 돕고 교화하는 생활인을 말한다.

이상에서 출가·재가 여성의 성불사상을 번거롭게 나열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교단에는 말로는 사부대중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이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여성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불교는 여성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발전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오늘 시점에서 보면 여성 스스로 종속된 상태를 인식 못 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여성 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자각이 선행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화경 방편품」에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다. 불법을 만남은 다겁생래의 인연으로 이룩된 선업의 결과다. 우리는 종파와 관계없이 간경, 참선, 염불, 진언 이 가운데 인연 있는 행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면 인연법,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연 즉 유대관계의 고리가 <불교여성개발원>에는 일찍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포교의 방편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인다. 인연 따라 모인다. 유유상종한다는 말을 현실에 살린 방편이다. 바로 ‘108인회’라는 유대관계의 인간 고리이다. 이 인간의 소중한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면 포교라는 커다란 과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과 〈한국에서의 학살〉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정면의 눈, 옆으로 누운 코, 삐뚤어진 턱, 뾰족하게 과장된 얼굴. 흔히 사람들은 무언가 변형되고 왜곡되어있는 형태의 그림을 보면 ‘아...피카소의 작품 같군’이라고 한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카소는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에 속한다. 20세기 미술은 피카소에 의해 시작되었고, 피카소의 세기였으며, 피카소를 위한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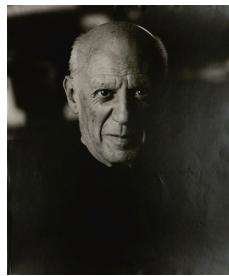


그림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탄생 140주년 특별전이다. 스페인 말라가 출생의 ‘피카소’의 풀네임은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마르티르 파트리시오 클리토 루이스 이 피카소(Pablo Diego José Francisco de Paula Juan Nepomuceno María de los Remedios Cipriano de la Santísima Trinidad Martyr Patricio Clito Ruíz y Picasso)”다. 많은 이름을 가지면 그만큼 많은 재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말라가의 풍습이었기에 그의 긴 이름에는 혈통의 축원이 깊이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피카소는 무척이나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피카소는 파리에 오래 머물면서 주요작품들을 제작했다. 피카소가 사랑한 도시 파리의 마레지구에 위치한 파리국립피카소미술관의 소장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판화, 도자기 등 피카소 예술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걸작 110점들로 구성되었다.

국립피카소미술관 소장의 작품들이 이처럼 전시를 위해 대규모로 국외로 반출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아마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미술관이 휴관하고 있는 덕은 아닐까 여겨진다.

목이 길고 커다란 눈망울의 여인이 장미꽃이 가득 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아름다운 질로와 헤어진 후, 남 프랑스의 도자기 공방에서 질로를 꼭 닮은 커다란 눈망울의 여인, 자클린을 만나 사랑에 빠진 예술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그린 그림으로 짐작된다.

고통을 마주하고 찬찬히 슬픔을 들여다보던 블루 시대를 거쳐 피카소는 여인에게서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끌어내면서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유한한 삶을 비웃거나 하듯 럭비공 같기만 했던, 도저히 삶의 방향이나 예술기법을 예측 불허케 했던 예술가 피카소에게 여인은 창조적 작업의 원천이었고 인생과 예술 속에 녹아 있는 불가결의 존재였다. 여인은 피카소의 예술에 있어 샘솟는 영감의 원천이자 뮤즈였던 셈이다. 160cm 정도의 작은 키에 강렬한 눈매를 가진 남자, 피카소를 만난 여인들은 모두 그의 눈빛에 빠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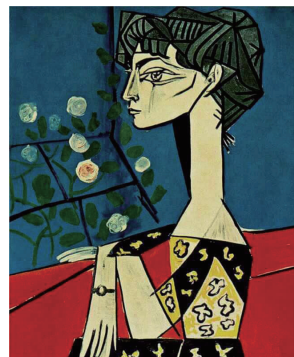


그림 파블로 피카소, 재클린과 꽃(Jacqueline with flowers), 캔버스에 유채, 116 x 88.5 cm, 1954년.

“향긋한 커피 한잔에도 행복해하고, 투우장의 열기 속에서 삶의 열정을 느끼고, 카탈루냐 산골의 바람과 물소리에 열광하고, 카페에 앉아 친구와 술과 스케치에 몰두해 있는 순박하고도 열정 넘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 『피카소의 맛있는 식탁 A la table de Picasso』에서 에르민 에르셰(Ermine Herscher)는 피카소를 회고한다.

감정적 표현을 멀리하고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본 형태를 한 화면에 조합해 제시하는 피카소의 입체파 전략은 묘하게도 기원전 이집트 미술양식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평생토록 평범함과 위선적 모럴에 저항하며 자유를 추구했던 피카소는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어쩌면 생멸 · 변화하는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5온(五蘊) 너머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에 가 닿고자 부단하게 나아간 것이 피카소의 예술 여정은 아니었을까.

이번 전시에는 피카소의 과도기 작품들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피카소의 개성적인 작품들은 물론 한국전쟁의 비참함을 담은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en Coree)〉이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미술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피카소의 또 다른 대표작 〈게르니카(Guernica, 1937)〉, 시체구덩이(Le Charnier, 1945)와 더불어 피카소의 반전예술 3대 걸작으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en Coree)〉은 피카소가 1951년에 그린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이 여러 차례 국내 전시를 시도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매번 실패했던 작품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70년 만의 첫 한국 방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한국에서의 학살〉은 한국전쟁(Korean War, 6.25전쟁) 발발 6개월이 지난 1951



그림 파블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en Coree), 합판에 유채, 110 x 210cm, 1951년.

년 1월, 당시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열린 살롱 드 메(Salon de Mai)전에서 이 작품을 공개했다. 한국이라는 국가를 작품 제목으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가로 210cm, 세로 110cm 대형 합판에 유화로 제작된 이 그림은 왼쪽에 공포에 질린 벌거벗은 여인과 아이들, 오른쪽에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피카소는 이 그림에서 인간의 잔혹성의 대명사로서 군인의 모습을, 피해자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전쟁이 얼마나 인간에게 커다란 공포와 잔혹한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코비드 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전 세계와 사회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함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극심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시기와 맞물려 모든 생명의 평등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마주하게 만든다.

피카소는 말하기를 “어떻게 예술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자유’란 생명 그 자체만큼 본질적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유는 물론 만인의 자유에 대해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세기의 천재 화가 피카소의 삶과 예술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으로, 불꽃 같은 예술혼으로 창작의 전 분야에서 걸출한 작품을 남긴 피카소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피카소는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선한 것을 내 방법을 통해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화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듯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천재 화가라 불리는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 내면의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야말로 예술의 영토에 피는 향기로운 꽃임을 깨닫게 된다. 🌸



불교와 섹슈얼리티 『여성 붓다를 만나다』 한울 판

성평등 이슈는 이제 달리는 열차와 같다. 누구도 뛰어내릴 수 없다. 국가 기관도, 학교, 기업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종교계는 늑장을 피우고 있다. 성직자의 남녀비율은 국회 남녀비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신도가 남성 신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말이다. 삶,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종교들이 왜 성평등 이슈에서는 낙후되어 있을까? 절망한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종교는 왜 다양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평등 이슈를 슬쩍 뒤로 밀어버렸을까? 이것은 현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4대 종교가 공통으로 드러낸 문제다.

특히 불교에서 성평등 문제를 제기하려면, 불교에 어디 여자 남자 구분이 있으며, 모두가 공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반문이 들어온다. 여성차별이 눈앞에 만연한데, 아예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젠더연구소는 여섯 명의 불교 관련 학자, 옥복연, 전재성, 류경희 김정희 우혜란 조승미 등을 초대해 강연을 열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붓다는 페미니스트인가?' '불교는 어떻게 가부장적 종교로 변질되었는가? 첫째, '붓다가 페미니스트였다는 밝히는 것은 현재 성차별적인 불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붓다가 성평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시대적 메커니즘을 밝혀 불교 내의 성평등 확장에 활용할 여지를 둔다. 두 번째 질문은 불교 안에서 여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왜 초기 불교는 여성이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고 후에 제도화되고 발전된 불교는 여성의 성불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말이다. 류경희는 브라흐만 종교를 비판하고 등장한 불교가 평등주의 종교였음을 보여준다.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여성들의 참여는 절실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토착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가부장과 타협한다. 성평등 이슈를 중심교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복연은 여성 승단을 허용한 붓다와, 그를 만난 여성들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그는 페미니스트적 해석을 통해 경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의 역사는 오래다. 생리, 임신, 섹슈얼리티는 모두 여성의 삶을 파괴할정도로 통제하고 처벌하

는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 붓다는 모든 인간이 여성의 자궁에서 나왔으며, 생리는 생명탄생의 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시 여성을 부정하게 보고 차별을 일상화시킨 관행에 도전한다. 옥복연은 이러한 붓다의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한다. 그는 여성의 의무를 나열한 경전은 그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목소리를 가진 주체적인 협력자이고 조력자로서 살아갈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전재성은 엄숙한 의례로 계급화를 가속시켰고 여성을 배제한 브라흐만 종교를 비판했던 붓다가 여성이 겪는 고통에 깊은 이해를 했음에 주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교가 그 교세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계율을 만들어 냈다. 그는 '승가의 성립 초기에는 깨달음과 설법만 있었지 계율은 없었다' 고 언급하며 각각의 계율이 만들어지는 그 맥락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대적 맥락이 있었음을 밝혀낸다. 그는 오늘날 비구니를 차별하는 팔경계는 그 계율의 정신을 살리되 현실에 적용하는 재해석을 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율에 묶여 시대에 뒤쳐진 불교계에 대한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책의 전반에서는 가부장의 껍데기를 벗겨내 불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 애썼다면, 후반에 김정희의 '불교와 무속,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우혜란의 '낙태아 천도재와 여성의 삶', 그리고 조승미의 '동아시아 불교의 여성 선사들'은 여성들의 일상속에서 접목되고 실현된 불교이야기를 통해 성평등한 불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난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다. 사람에 대한 사랑, 창조에 대한 경이감은 나를 페미니스트로 이끌었다. 기독교의 가부장이 나를 가두지 못했고 난 가부장에 분노했고 싸웠다. 페미니즘은 일상뿐 아니라 신앙에도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나의 벗 불교 페미니스트들이 회복하려 했던 처음 붓다의 목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진 가부장의 울무를 벗겨내는 과정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사람들의 책무와 자유가 동시에 느껴졌다. 불교는 인생을 고(苦)로 본다. 싸워서 목이기보다 받아들이며 극복한다. 생노병사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를 성불하게 돕는 스승이라고 말한다. 문득, 우리를 괴롭히고 차별했던 가부장제 역시 우리를 성불하게 하는 역경계가 아니겠는가. 라는 소리가 힘있게 나에게 다가왔다. 불교페미니즘이 내놓은 전략은 뭔가 다르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이 다가왔다. 🙏



청정무구한 깨달음의 도량 금상선사와 일법스님

스님께서는 우리 절은 문화재가 있는 절도 아니고
신도가 넘치는 절도 아닌데 무슨 취재냐고 한사코
사양하셨다. 사찰이라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다르다시며, 경내도 그렇고, 학인스님이 올

고가는 절일 만큼 절이라고 할 수 없다시며, 금상선사는 도심이 가깝고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소
개하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스님께 간청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냈다.

금상선사. 이름에 象자, 코끼리상 자가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을 선언하신 후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바이샬리를 돌아보셨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 예사롭
지 않게 마음에 새겨졌다.

일법스님.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의 고문으로 계시며 늘 크게 격려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김선옥 원장님, 이영희, 김영희, 조정숙 편집위원과 필자는 비슷한 시각에 도착했다.

금강선사는 인천시 계양구의 이름난 계양산 장미원 초입에 자리잡고 있어 장미가 만발한 계절에 방문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차를 좁은 골목길 담벼락에 붙여 세우려니 불안불안하여 찢찢매는데 스님은 친히 나오셔서 골목길 교통
정리를 해주시고, 널찍한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셨다. 민망한 우리 일행은 시자스님은 안 계신가 여쭙니, 스님 왈 “뒤편
제가 시자까지……”

단숨에 일축해 버리셨다.

스님은 올해 법랍 62세.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세속나이 82세다.

- 1960년도 음력 삼월 삼짇날, 대성암 도량에 入門하여 오늘에 이르렀어요. 같은해 음력 5월 그믐 반산림(山林) 사시
대중공양을 마치고 입승스님께서 공지사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성 입승스님께서 대중스님네께 ‘심행자는 삼현
(三現)이 상좌를 합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대중스님네가 80여 명 결재를 하셨는데 약간 웅성거렸고 죽비소리 나
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때 배삼현스님은 통도사 말사 내원사 비구니선원에서 결재 대중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는
사중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해제하면 도반 상좌 보러 간다는 삼현스님 도반스님네의



전갈이 들려왔었습니다.

저는 음력 7월 초파일 삭발했습니다. 그날, 찬간의 채공행자는 큰방에 들어오라는 부전스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루마기 정복하고 들어가 삼배 올리고 탁자 밑 제자리에 앉으니 입승스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문수삭발이니
심행자를 삭발해주도록 하시오.’ 하는 분부에 따라 저는 삭발하게 되었고 오후 입선전에 큰방 들어가서 여간 상판 하
판 탁자 밑 등 사방에 삼 배씩 올리고 무릎 꿇고 탁자 밑 제자리에 앉으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대성전에
기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뜻인가 생각했으나 얼른 일어나 합장하고 삼 배를 여간 노스님께 올렸습
니다.

- 음력 7월 보름, 해제 일주일 후 범어사 입구 팔송리에 비구니스님네 일곱 분이 무거운 걸망을 지고 걸어오시고 있다고
부목 김 처사가 온천장 갔다가 땀을 흘리며 귀사해서 전해주었지요. 이미 해제 후 산철이라 대중스님네도 거의 출타

하시고 본방스님네만 20여 명 계셨는데 혼자서 객스님네 늦은 점심상을 봤던 일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묘했었습니다.

- 저는 동학사 가기 전에 김혜경(1·4후퇴때 월남. 이북 이일우 강백문화 평양포교당 주지 역임)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다 배우고 책거리를 해드리고 3일 후 불교전문강원 동학사에 방부드렸는데 혜경스님의 안부를 경봉조실스님께 전해드렸더니 '살아있었구나!' 하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조실 김경봉 강백문화에서 치문, 도서, 절요를 배우고 혜강이란 정평을 듣고 청암사 강고봉 강백문화에 비구스님네와 합반하여 선요부터 능엄경, 기신론까지 공부한 후 다시 동학사 경봉 조실스님께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을 마치고 서울로 갔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좋았던 학인시절이었죠. 그때는 학인이 강사스님을 찾아가서 방부를 청해 받아주시면 그 문하에서 간경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경허선사(1849~1912)의 사진. 일법스님의 소장품으로 은사이신 배삼현스님의 유품이다. 스님은 법당에 경허선사, 한암스님의 사진을 액자에 나란히 걸어두고 바른 공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 1973년도 2월 28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경스님이 동대 이사장을 지낼 때였는데, 이사장실에 갔더니 '스님네는 모교를 살려라! 어째 스님네가 강원에서 배우고만 나가면 되느냐?' 하셨습니다. 당시 동학사 동문회장 묘희스님의 간곡한 애사심어린 열변을 듣고 마침 수현스님이 동학사 주지 임명장을 받게 되었는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간 스님네가 환속률이 높아서 유학을 접고 동학사로 가서 연구과에 방부를 드리고 전등염송을 연구하게 됐지요. 그때 중강을 맡아 치문을 강의하면서 총무를 보면서 힘이 많이 들었으나 학인들과 함께 연구, 탐마하는 것이 보람이 있었지요.

1976년 2월 22일 동학사 조실 정호경 강백의 전강계첩이 전강식장에서 수여되었지요. 당시 정수현 주지스님의 배려로 성대한 전강식을 했습니다.

전강계자는 경천현주鏡天現珠, 경해일법鏡海一法, 경월鏡月일초, 경화鏡華보관 등 강사스님이었는데 지금 일초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 학림장으로 재직중이시지요.

- 김태흡(대은) 조실스님이 화운사에 계셨는데 전강제자 묘순스님이 개인 사정상 학인 수학중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월정사 탄허스님 화엄경 특강중에 화운사 스님네가 3차레나 다녀가시니 탄허스님께서 화운사 가지 말고 강의 끝나면 동학사로 돌아가라 하셨으나 화운사 지명스님이 사숙님이라는 관계로 결국 1976년 12월 22일 강사 취임식을 하고 학인들 겨울방학을 해놓고 월정사 화엄특강을 회향하고 정월 학기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었네요.

- 1981년 10월 화운사 강사를 사임하고 그이듬해 천년고찰 구미 복우산 대둔사로 들어갔습니다. 못새소리와 바람소리 속에 정진하기 정말 좋은 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당우에 계신 부처님을 비 맞게 할 수 없는지라 해체보수



김영희 편집위원이 마련해간 차로 금강선사 마당에서 일법스님 모시고 대화하다.(좌) 장미원 내 이규보 사비앞에 선 일법스님과 김선옥원장(가운데) 장미원 둘러보고 난 일행(우)



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웅전, 명부전, 응진전, 선불장, 요사채 등

등. 대웅전 대불보 안에서 상량문과 몇가지가 나왔는데 130년 전 불사기록이었습니다. 낮엔 공사판에, 밤엔 화두를 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어느덧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어 전관응 조실스님과 오녹원 주지스님과 배도원 주지스님 등 어른들의 말씀대로 대둔사에서 강석을 펴지 못하고 불사도 원만회향을 못 한 채 대둔사를 2003년에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각오로 금강선사에서 정진에 매진하던 중 2008년 소림사 주지 발령이 나서 4년 힘든 소임을 완수하고 오늘에 이르렀답니다.

- 제가 학인이던 시절,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가 1968년 창립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이셨던 보문사 송은영스님 등 비구니스님들이 전국 조직 결성을 논의했고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6천여 비구니스님들이 단합하여 불교 근대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포교의 근대화를 위해 단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지요. 지금 저는 전국비구니회의 원로회의 원로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94년 종단 개혁때는 중앙종회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경허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일찍이 강사로서, 대둔사 등 주지로서, 종단의 중요한 소임까지 맡아하며 참 일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불법이 강하니까 외도들의 모함도 참 많았는데 스님께서도 그 많은 소임을 맡아하는중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쭙어보았다.

그래도 스님께서서는 의연하게 “봉사를 하든 불사를 하든, 사회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다. 덧붙여 “절집에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 있지만 숨어서 공부하는 사람 많다. 불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 마음공부 더 해야지.” 하시며, “불교여성개발원도 공덕을 쌓고 청정무구한 자리에 서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금강선사가 스님의 뜻대로 청정무구한 깨달음의 도량이 되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염원해야겠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사심 없는 여성군자의 리더십, 이영숙

이번 호에는 1차 108인이자 부산 코모도호텔 회장 이영숙 선생님을 소개한다. 사심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내로 가득찬 선생님의 인생 여정을 들으며 마치 도덕책이나 위인전기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지루하지 않고, 그토록 힘이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일까? 음성에 담긴 말의 힘까지 전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면으로만 전하게 되어 아쉽다. 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한 채 보내주신 녹음을 거듭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리하였다. 질문지에 일일이 음성녹음으로 답변을 주신 선생님과 진행을 도와주신 개발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스승은 가까이 있다 - 친절과 시댁 두 어머니에게 배운 것

저의 삶에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저의 두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친정어머니는 이웃이나 친척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서울서 사니까 지방에서 친척들이 직장 구한다고 오면 방에 끼어서 자더라도 다 재워주었습니다. 시험기간만이라도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도 어머니는 제 간절한 호소의 눈빛은 본체만체하시고 오는 친척들을 다 재워주고 먹여주었기에 제 방은 늘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또 이웃이 생일이면 종종 떡을 해서 나누어 주셨고, 제사 때는 6촌 형제들까지 불러 골고루 음식을 나누어 주시느라 집안의 유일한 딸인 저는 계란 하나 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불평하면 어머니는 조용히 '그걸 먹는다고 뼈가 되니, 살이 되니?' 하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나타나게 베풀지는 않았어도 저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학교 때 교과서에 '즐거운 우리집'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곧바로 '우리집이야말로 바로 그 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때 우리 집이 그다지 잘사는 집이 아니었고 넓지도 않았지만요. 제가 약간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말보다는 실천을 보이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를 닮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밥 먹었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입니다만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고는 자기 엄마에게 전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밥 먹었냐고 묻는 아줌마한테 전화 왔어.'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저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어머니는 또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주위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 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사업에서 큰 고비를 넘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로부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배웠다면 시어머니께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회향하는 삶을 배웠습니



다. 시어머니는 30대 중반에 홀로 되셔서 1남 3녀를 키우면서 불교 신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신혼 때 저희는 강원도에 살았는데, 저는 약국을 경영했고, 시어머니는 정선의 정암사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위장이 안 좋아 식사를 잘 못하시고 노상 아픈 데가 많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절에만 가시면 언덕길을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가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신심

인 줄 몰랐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 저 또한 평소에는 힘들다가도 절에 갈 때면 언덕길도 잘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신심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온 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시던 시어머니에 대한 회상에 젖곤 합니다. 이제 저도 정성과 열의만 있으면 부처님을 따라 할 수 있겠다는 묘한 환희심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시어머니는 불사한다는 말만 들으면 우리도 큰 것을 하자 하시고, 권선문을 들고 바삐 다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도 실컷 보시하리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만의 리더십-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사심 없이 상대를 대하는 마음

저는 대학입시 때 처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약대에 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본 후 발표를 기다리는데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불공 가시는 어머니를 보고 저도 따라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간절히 빌었는데,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간절하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살림이나 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호텔의 경영을 맡게 된 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처음 부산에 내려올 때 저는 회사 상황이 그토록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빚쟁이가 쫓아오고 노조가 생겼습니다. 저는 두렵고 혼란스러워 혼자 호텔 16층에 누워 울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사장이 직접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 안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노조는 사장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원망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이처럼 다른 겁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사장이면 사장 자리에





적응해야지. 들어가자!’ 그리고 노조 대표를 마주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들은 코모도호텔 사장이라니까 부러워하는데 이럴 때 나는 내가 사장인 것이 참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더군요. 순간 분위기가 확 풀렸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함께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나간 직원들로부터 다시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요즘도 종종 듣습니다. 우리 회사 사훈이 친절, 성실입니다. 꾸민 친절과 성실이 아니라 진실한, 계산하지 않은 친절과 성실!

돌아켜보면 부처님은 저의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고비가 올 때마다 부처님께 일념으로 매달렸지요. 무작정 내방에서 해뜨는 방향을 향해 108배 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100일이나 1,000일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꾸준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언젠가는 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켜보면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가피 아님이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설사 아무 뜻 없이 혼잣말 하듯 하는 감사의 말도 언젠가는 불가사의한 가피로 돌아옵니다. 제 어린 손자는 엄마랑 길을 건다가 집으로 먼저 돌아가라는 말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이나고 물으니 할머니는 아무 일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신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도소 모범수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생활이 무슨 감사할 일이나며 황당해 했지만 여러분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공부도 행동도 모범으로 뽑혔으니 감사할 일이고, 이 시기만 지나면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 자리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또래 중에 거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두 발로 걸어나오고, 혼자 기차를 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개발원 회원에게 바란다

무엇보다 회원끼리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만나다 보면 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을 해도 정감 있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평만 하게 됩니다. 불자는 마음이드 말로든 서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도반이 좋아야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좋은 자극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인연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할 때에는 위치에 연연해 말고 자리라도 채워줘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혹시 말이 많아도 대범하게 넘기고 지적하지 않고 참아주면 개인도 단체도 발전할 것입니다. 🙏



여성불자 108인회 제9차 환영 워크숍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홀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회장 양경운) 제 9차 환영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해 4월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차일피일 미루다 진행된 이 행사에는 김인숙, 노숙령, 김외숙 전 원장들과 이영미, 전재성 전 108인회장, 강연을 맡은 김연호 재천문화재단 이사장과 각 센타장, 각 차수장 등 30여 분이 참석해 축하하였고, 9차에서는 30여분이 자리하였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재가여성불자의 리더십’이었다.

여성불자 108인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자

108인회 이원표 총무의 사회로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의 “우리가 부처님의 법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 지혜롭고 자비로운 단체가 되어 불교계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란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어서 여성불자 108인회 양경운 회장의 “긴 세월 동안 여성불자들이 불교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108인회 이름으로 새 가족이 된 9차 108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란 환영사가 처음 만나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를 밝게 하였다.

그리고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단체인 여성불자 108인회의 활동영상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인지하게 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에 교육연구, 문화예술, 정치행정, 포교신행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교지도자 108인을 2년마다 선출하여 9차에 걸쳐 1,000여 명의 유능한 불교여성지도자들을 회원으로 하고있다. 여성불자 108인회는 구성원의 친목과 화합, 교류는 물론 불교여성개발원 활동의 주체가 되어 불법을 실천하고 사회전반에 펼치고자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재능, 시간, 돈을 기부하라

워크숍의 주제 강연을 한, 김연호 강사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불타정신의 체험이다”란 특강을 들으며 나누는 삶의 무한한 공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9차 권선 차수님의 부군인 김연호 강사는 재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우리는



선우'의 제천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립청주박물관에 문화재 630점을 기증하는 등 실천하는 불자로 국민훈장 석류장, 불이상 등을 수상하였고, 8권의 수필집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특강의 요지는 '인연은 노력과 공덕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교는 대중과 더불어 가야하므로 불자라면 돈이나 시간, 지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기심은 나를 병들게 하고, 이타심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불심이 곧 행복이며,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강연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재능이나 시간 그리고 재보시 역시 성심으로 행해야 함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긴 세월 신행 활동을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역정을 이야기하는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에서 신심이 느껴져 크게 박수를 쳤다. 단체 사진 촬영 후 김인숙 초대원장님의 "9차 108인이 되신 것을 축하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란 권배사가 우리를 더욱 정겹게 하였다.

식사 시간에 비로소 통성명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혔다. 그 사이에 개발원 3개 기구, 7개 사업센터, 2개의 지원과 부설 센터 1개에 관한 소개와 센터 대표들의 9차수를 끌어가려는 열띤 홍보 시간이 끝나고 108인 각 차수장들의 인사가 있었다.

불교여성개발원 발전을 위한 9차 조별 발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9차 108인들의 조별 토론은 짧은 시간 안에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으며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 토의의 주제는 "여성불자 108인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였고, 조별로 간단한 팀원의 소개와 조별 토론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소중한 의견들이어서 판단이 어려웠다는 김외숙 전 원장의 말씀대로 0.1% 차이로 1조, 3조, 2조가 수상하여 푸집한 상품도 받았다. 조별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김영희, 오현경, 양정희, 이봉후, 오능희

상설 바자센타를 개설하여 판매한 이익금으로 본원 회관 건립과 108인회와 여러 센터의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108인들은 능력있는 구매, 판매단으로, 그들이 추천하는 좋은 물품, 건강한 먹거리는 회원들에게는 양질의 정보 제공과 나눔의 실천이 될 것이다.



2조 /김경숙, 김미원, 이은희, 민경란

정기적인 법문,교육, 인문학 강좌를 통한 행복전달. 재능기부, 바자회, 강좌 수강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3조 / 장정화, 정승희, 조귀자, 손미원

108인 불자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주말 시간 재능기부로 차세대 불자 육성에 참여한다. 108인 불자의 정체성 확립, 전 차수가 조직화하여 108인만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전폭적으로 실행한다.(다문화가정 자녀 불자육성), 108인 불자 자체 사업을 통한 자립화 등



4조 / 정이연, 신용현, 전영희, 김숙애, 김정희, 송중옥

전국적인 여성불자 조직화를 위해, 지부를 만들어서 자주 모여 친밀감을 갖는다.(명단 확보),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후원받아 봉사 참여한다. 지역별(강원, 충청, 경상, 전라, 서울 경기)로 묶어서 회원이 많아지면 분리한다.(지부장제)

5조 / 김종애, 최천숙, 한 채화, 권승오, 강미숙

먼저 108인으로 선발됨에 감사드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여 봉사한다. 108인의 색깔 찾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전문적인 특색 형성 필요(봉사, 후원단체), 전문인 활용한 교육 필요, 전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8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

조별 토론 후 노인자 이사의 리더로 우수 타임을 가지며 긴장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였고 멀리 제주에서 온 9차 오능희 차수의 축하곡 <아침서곡>, <향심> 두 곡과 위즈덤 합창단의 <오늘은 좋은 날>, <나는 행복한 사람>은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아름다운 음성공양이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며 워크샵은 막을 내렸으나 카톡 방에는 참석자들의 인사가 쏟아졌다.

"각 테이블 다니며 인사 나누지 못했지만 모처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귀한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부처님의 인연으로 어색함 없이 많이 훈훈하였습니다" "하하호호 즐거운 날, 특히 소프라노 오능희 차수님 곱고 맑은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108인회의 주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다른 테이블 분들 말씀 나누지 못해 아쉬웠어요." "행사를 마련해주신 회장님,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대화하며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멋진 여러분들과 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등 소감은 여러 가지였지만 9차수의 마음은 '108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돕는 참 법우

승만경 4장 攝受正法章에 ‘普爲衆生 作不請之友 大悲安慰 哀愍衆生 爲世法母’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모든 중생을 위해 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도와주는 친구, 대비의 마음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가엾게 여겨 사랑한다는 그래서 세상의 법모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우선 가깝게 생각하면 친구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는 친구가 참 친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확대되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고, 대중공양을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자가 된다면 바로 법모(法母)가 아닐까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어 10년째 자비나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비나눔 선물을 위한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우선 선물을 위한 모금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226명이 동참하여 18,698,000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전달 포장을 위해 준비 완료된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약속된 시간에 봉사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 잡고 포장을 시작하는 손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을 해왔으니 숙련되었나 봅니다.

꾸러미에는 간식공양과 법공양, 그리고 애민의 마음 듬뿍 담았습니다. 바빠 움직이는 손길 따라 혹시 빠진 게 없나 확인하는 눈길마다 어미가 자식 대하듯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모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눈짓으로 주고받으며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스크 속 입가에는 미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김선옥 원장님을 비롯해 손길이 척척 맞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니 못 할 게 없다”라며 흥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니 못 할 게 없다”라며 흥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니 못 할 게 없다”라며 흥겨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을 모아 선물을 한다는 그 마음이 한마음이 되니 환희롭습니다.

간혹 마스크 속에서 들려오는 법담도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 구하고 바라는 것 있으면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로다.” 『잡아함경』

자비나눔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은 바라고 원하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이 되니 참으로 즐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꾸러미 2,20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꾸러미들이 대형 박스에 그득 채워져 복도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과 함께 이 선물이 군 장병에게, 문화가 달라 마음고생 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에게, 군 법당 예비 불자에게 전달될 것



2021 자비나눔 선물



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문사수법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표 법사 김태영)와 도서출판 해조음(대표 이주현)이 소책자 『불교란?』 2,300권을 법공양하여 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김선옥 원장님은 “이 책자가 인연의 씨앗이 되어 발심의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큰 보람이 없겠다”고 전법의 간절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꾸러미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불자의 인연을 맺는다면, 간식을 먹고 포장지에 붙어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스티커를 보고 불교에 호감을 느낀다면,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 장병에게 이 꾸러미가 위안이 된다면,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의 자비가 그들의 가슴에 전달되어 함께 흐른다면, 이 땅에 불국토의 초석을 놓는 것이 아닐까 나름 거대한 발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모가 되어봅니다.

일부러 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움을 주신 후원동참자는 226명, 현장에 꾸러미 만드는 봉사 하러 일찍 나선 자원봉사 회원님들이 31명, 일사불란하게 하니 그 많은 꾸러미가 2시에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꾸러미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임자를 만나 어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자비나눔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부인인 김선희 님이 봉사에 참여하고 간식으로 마카롱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차 108인 김옥희 님이 샐러드를 대중공양하였고, 8차 108인 우인순 님은 호두과자를 대중공양하였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릅니다.

이번 공양물은 GOP 부대 9곳 - 1,690개,
군 법당 5곳 - 480개,
다문화봉사단 결혼이주여성 자녀 - 30개
합계 2,200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참 법우들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감사 명단



원장 **김선옥**
6차108인, 전)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부원장 **양경운**
5차 108인, 화가



부원장 **구완자**
6차108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부원장 **우순기**
5차108인, 진해문화원 원장



부원장 **정대련**
6차 108인,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부원장 **이정호**
2차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수련감독치료사



부원장 **이주현**
4차108인, 해조음출판사 대표



부원장 **원유자**
4차108인, 한국대학생불교총동맹회 상임고문



이사 **강영자**
6차108인, 가피봉사단 의료팀장



이사 **김진**
2차108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수현**
2차108인, BTN부산지사장



이사 **김옥주**
7차108인, 천매갤러리 대표



이사 **김인숙**
1차108인, 구슬정원 대표



이사 **노인자**
5차108인, 종로우수협회 대표



이사 **문명하**
5차108인, 국제포교사



이사 **민경란**
9차108인, 전)창동중학교교장



이사 **손미원**
9차108인, 엠테라파마 대표이사



이사 **손재현**
2차108인, 동국대학교체육교육과(무용)교수



이사 **이영미**
6차108인, (주)세미성대표이사



이사 **임완숙**
2차108인, 청하문학회회장



이사 **정진희**
3차108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



이사 **최혜경**
2차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이사 **피상순**
3차108인, 우리사랑정신과의원 원장



이사 **황익숙**
4차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회회장



연구이사 **송현주**
8차108인, 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연구이사 **전영숙**
4차108인,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사업감사 **조은수**
2차108인, 서울대철학과교수



회계감사 **김영숙**
6차108인, 전)우리는행지점장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명단



이사장 **김선옥**
6차108인, 전)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이사 **김상애**
5차108인, 운가자비원 운가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사 팀장



이사 **김연화**
6차108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사 **김영희**
9차108인, 한국차인연합회 편집국장



이사 **김혜정**
8차108인, 사경작가



이사 **남동현**
6차108인, 전)명문고등학교교장



이사 **모의희**
6차108인, 모의화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이사 **박원자**
5차108인, 작가



이사 **박지선**
회원,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사 **성낙운**
4차108인, 매듭연구가



이사 **안애원**
7차108인, 전)주한공관 공보원



이사 **양현정**
8차108인,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원장



이사 **엄희원**
회원, 힐스영재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이사 **윤덕심**
9차108인, 전)방배중,고등학교교사



이사 **윤정로**
9차108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석좌교수



이사 **이명숙**
7차108인, 전문포교사



이사 **이명순**
2차108인,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



이사 **이순재**
8차108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사 **이원표**
8차108인, 전)봉은사신도회사무총장



이사 **이재심**
8차108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객원교수



이사 **이태영**
9차108인, (주)명트레이닝대표이사



이사 **형난옥**
6차108인, 출판사 나북 대표



이사 **황수경**
3차108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이사 **황순덕**
5차108인, 전)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서기관

사무국 소식

○산·구원장 업무 인수인계

4월 1일 취임한 김선옥 원장은 4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산·구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정기운영위원회

김선옥 선임 원장이 취임 후 매일 두 번째 수요일 오전 11시에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4월 14일, 5월 12일 회의에서 자비나눔 선물 모연, 연간 사업 일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어 4월 28일에 전임 원장님 들을 초청,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역대 원장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고, 5월 6일에는 원장을 도와 개발원을 이끌어 주실 부원장단과도 공양을 함께하며 역할 분담을 논의하였다.

○날란다독서모임

『인도-네팔 순례기』와 『훈민정음의 길-해각존자 신미 평전』 날란다독서모임의 『인도-네팔 순례기』 독서 활동은 3월 18일에 시작하여 6월 28일에 끝나고, 이어 두 번째 책 박해진 著, 『훈민정음의 길-해각존자 신미 평전』(나눔)을 시작한다. 7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Zoom으로 진행하며, 기간 중에 저자 특강도 가질 예정이다.

‘날란다독서모임’은 올봄에 갓 태어난 불교여성개발원의 독서 모임이다. 코로나로 ‘집콕’을 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최근 각전 스님 저, 『인도-네팔 순례기』(민족사)를 함께 읽으며 상상 속

순례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순식간에 15명 내외의 카톡방 모임이 만들어졌다. 3월 29일 월요일에는 저자를 모시고 특강을 열고, 4월 26일에는 서초동 인도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이제 날란다독서모임은 두 번째 독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읽을 『훈민정음의 길-해각존자 신미 평전』에 관심 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숨은 듯 드러난 듯 신미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글 창제와 유포의 숨은 주역 조선 초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흔적을 좇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부처님 오신날 맞이 자비나눔 선물 나누기 모연과 포장봉사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 동안 자비나눔 선물 모연을 시작하여 225명이 동참하여 18,598,000원을 모금하였다. 15곳 부대에 2,200세트 1천1백만 원을 꾸러미 포장 선물하고 잔액은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과 교정교화센터에 부처님 오신날 기념 행사를 지원하였다.

이주현 부원장은 『불교란』저자_한갑스님, 문사수법회 출 책 2,300권을 후원하였다.

5월 13일 선물포장은 3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김옥희님(5차 108인) 샐러드 후원, 김선희 후원자님 마카롱, 우인순(8차 108인) 호두과자등을 후원하여 잘 마무리 되어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사무국 소식

○부산자원방문과 이영숙 코모도호텔 회장 108인

기획인터뷰

5월 25일(화) 김선옥 원장과 양경운 108인회 회장, 이주현 부원장, 정진희 이사, 조정숙 국장이 부산자원을 방문해 이영숙 고문, 김수현 부산지원장, 김종숙 수석부원장을 만나 코로나로 신입 원장 취임식에 함께 못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이영숙 고문과 만나 불교와의 인연, 여성불자 경제인 성공사례 등을 취재하였다.



이어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된 경남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 진해에 우순기 부원장과 함께 정법사 상운스님을 친견하고 차담을 나누었다.

아직 코로나 시기가 지원 준비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로 하였다.

○‘찾아가는 토크(Talk Talk)놀이명상’

5월 25일부터 7월13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토크(Talk Talk)놀이명상’에 25명의 중장년 여성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토크(Talk Talk)놀이명상’은 중장년 여성이 놀이명상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지역 사회 유아동 양육자 및 유아동 교육기관에 파견됨으로써 사회적 역할의 장을 제공하고, 중장년 여성이 자신을 치유하고 존재감을 향상시켜 공동체의 코로나블루(우울감) 극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유아동 양육자와 교육기관에 파견돼 현장활동을 하게된다.

2021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찾아가는 토크(Talk Talk) 놀이명상 강사 파견 현장 모집

- 대 상 : 유아동교육기관 5곳, 유아동 양육자 5가족
- 신청기간 : ~ 2021년 8월
- 교육비 : 무료
- 문 의 : 02-722-2110

○행안부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화운동 여성리더 양성교육’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의 평화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평화운동가 여성 리더 배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평화운동 여성리더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마련하여 평화운동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교육기간 : 2021. 7. 7~ 7. 28(수)14:00~16:00 강의 4회, 철원 분단현장 탐방 1회
- 교육장소 :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명
- 연락 : 02-722-2101/wisdom2007@daum.net
- 후원 : 행정안전부

날짜	차수	시간	주제	강사명
7.07(수)	1	14:00~16:00	사회단체 활동과 여성의 리더십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7.14(수)	2	14:00~16:00	해방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 여성의 의식변화 추이	현인에 이화여대 초빙교수
7.21(수)	3	14:00~16:00	북한 음식의 이해	위영금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7.24(토)	4	09:00~18:00	강원도 철원 분단현장 탐방	진창호 나눔하나되기 사무처장
7.28(수)	5	14:00~16:00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북한 사회	윤보영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본 프로그램 외에 10월 중에는 <북한 대중문화 온라인 퀴즈대회>가 있을 예정이니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회장양경윤, 5차 108인)

여성불자108인회임원워크숍

4월 12일 여성불자108인회는 강화도 전등사로 임원 워크숍을 다녀왔다. 신임 차수장과 각 차수별 임원 17명은 전등사에서 여암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눈 후 6월 바자 논의를 이어갔다.



9차108인회환영워크숍

그리고 6월 4일 여성불자108인 주관으로 '재가여성불자의 리더십' 주제로 9차 108인 환영워크숍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하였다. 총 62명이 참석하여 108인회 이원표 총무의 진행으로 김연호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 회장을 모시고 특강, 그룹별 토의, 축하공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바자

6월 10일-11일 이틀동안 제13회 여성불자 나눔 바자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3월부터 온라인 마스크 판매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의 후원, 기증품제공, 구매는 물론 108인회 차수장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수고 덕분에 좋은 목표금액 2,2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총 30분이 750여 점의 기증품과 35분이 후원금을 주셨고, 이순이 선생님은 이틀동안 따끈한 떡으로 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자비나눔 바자를 위해 108인회 각 차수에서 바자 아이템을 발굴하고 적극 판매하느라 뜨거운 날씨에 땀 흘리며



봉사를 하신 108인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참석은 못했지만 바자가 잘 되도록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바자 수익금은 불교여성광장건립과, 지혜장학금 지급, 본원 및 108인 주요 사업비로 일부 지출된다.

○가족지원센터(센터장박지선, 회원)

7월 27일 김연화 (6차108인, 김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의로 예술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9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10시~12시까지 '선업스님의 건강과 약차' 강의(총4강)가 진행된다. 1강 차와 건강 /2강 계절약차. 한방차/3강 보이차 이해 /4강 계절약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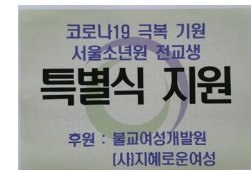
한편 5월 16일 가족지원센터 내 한부모자조모임은 경기도 양평 달북아트팜에서 난타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전 PMC 송승환 '난타'음악감독을 역임한 이병관 강사의 난타 이야기와 카혼과 각종 쉐이크 등 난타북과 조화를 이룬 타악기를 연주하며 난타에 쓰이는 악기를 체험하고, 난타 기본 장난을 익히며 음악에 맞춰 난타를 연습하고 시연했다.



○교정교회센터(센터장엄희원, 회원)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6월 15일과 28일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 극복기원 특별식을 제공

산하기관 센터 소식



하였다. 이번 특별식은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 선물 후원으로 제공하였다.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박원자, 5차 108인)

6월 24일 명상리더십센터 김홍근 교수 초청 참선 강의가 종강됐다. '화두명상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를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총12강이 진행됐다. 이번 강좌에 이어 하반기에는 친절하고 자세한 마음공부 입문서를 한 학기 동안 함께 읽고 회향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주제: 수심결, 친절한 마음공부 입문

*일시: 2021. 9. 7~11. 30(매주 화), 오후 2~4시 30분, 12강

*장소: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

*교재: 『수심결-마음 닦는 요결』(보조 지닐, 오광익 저, 동남풍, 2017)

*수강료: 총12강,15만원(30세 이하, 가족, 스님: 50% 할인/회원할인10%),

교재비 13,500원 별도

*계좌: 국민 023501-04-213778(사)지혜로운여성

*문의: 02)722-2110

*수강신청방법



▶문자 신청 02-722-2179 / 김지영 명상리더십센터 총무 010-4526-1126

▶온라인 신청(아래 사이트 클릭)
<http://bit.ly/김홍근교수초청강좌>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김상애, 5차 108인)

6월 11일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화계사에서 야외법회를 가졌다. 북한산둘레길 걷기명상, 어른스님과 차담이 진행될 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은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19가족과 다문화봉사단 18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4~5월 둘째 주 일요일 다문화가족과 다문화봉사단이 함께하는 Zoom 온라인과 오프라인 법회를 병행했다. 법사인 도영스님(인천 우리선원 주지)은 코로나로 지친 다문화가족의 심신을 위로하는 법문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갖기의 의미를 전했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송현주, 4차 108인)

6월4일과 5월 7일 불교여성연구소는 비대면 줌으로 연구위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여성연구소는 오는 11월 26일(금) 불교여성개발원 창립11주년 기념 및 불교여성연구소 10주년을 맞아 한국여성불교사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불교여성연구소는 7월부터 불교여성아카데미 강좌를

산하기관 센터 소식

시작한다. 불교여성연구소장 송현주 춘천향대 교양학부 교수는 7월 15일과 22일(목) 2주 동안 <불교여성성과 영화>를 진행한다. 첫째 주는 영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본 종교와 여성주의, 둘째 주는 영화 “꿈, 삼사라, 아제아제바라아제” 3편을 묶어서 본 불교와 여성주의라는 테마로 비교종교적 관점에서 불교여성의 정체성 탐구의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조승미 교수는 9월2일, 9월9일 저녁7시 온라인 줌으로 <불교사속의 여성선조들-초기불교편>을 강의한다.

현재 불교여성연구소는 다음 카페(<http://kko.to/BgxffdJDj>)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 중이다. (조승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불교와 여성을 주제로 관련 논문과 신문 기사 등 알차고 의미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내년도 발행을 준비하는 불교여성연구소 총서와 근현대한국여성불교사 집필을 위한 전단계로서 자료를 정리해 기존 블로그와 연동해 공유 중이다.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이순재, 8차 108인)

6월 30일 황외숙, 이주연 두분 상담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을 위해 삼청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14명의 의향서를 받았다. 또한 연명의료관리센터 담당자도 참석하여 불교여성개발원의 상담활동을 칭찬하고 상담 봉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연명의료관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3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생명존중운동본부에서 상담 성적이 우수한 황외숙, 이주연 두분이 현재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즈덤합창단(단장 문명하, 5차 108인)

4월 8일 창단 8주년을 맞이하여 초대 임동희 단장을 비롯하여 역대 단장 및 단원들이 함께 반가운 축하 자리를 가졌다. 또한 4월 20일 코로나로 지친 단원들의 단합을 위해 충북 영동 물한계곡 팬션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한편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11일 보리수 나무아래 시낭송회 축하공연, 5월 19일 동산불교대학에서 봉축 음성공양을 올렸다. 이어 6월 9차 108인 환영 워크숍에 이어 6월 10일 바자 오픈



○강원지원(지원장 김옥주, 7차 108인)

6월 10일 김옥주 지원장, 김무성 고문을 비롯한 회원 6명은 제13회 여성불자 나눔 바자에 참석하여 금일봉으로 바자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회원동정

○김연화(6차 108인)

6월 22일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두지협) 총회에서 현재 김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연화센터장이 제3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두리모는 미혼모의 이름에 담긴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위한 새이름이다. 2015년에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는 이영호 3차 108인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이 설립하여 초대회장 및 2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혜로운 여성과 전소시업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김진여심(5차 108인)

조계사 불교대학 1기 출신으로 2004년에 신행상담실 봉사를 시작해 2021년에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으로 승진하여 봉사하고 있다.



○김혜정(8차 108인)

2020년 9월 1일 떡차 제조에 관해 특허를 접수하여 4월 8일 특허청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차 감로공차(甘露供茶)의 의미가 크다.



○방혜자(3차 108인)

6월 10부터 7월 29일까지 프랑스 파리 미술관에서 À la merveille(투 더 원더)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봄에 예정된 한국 방문이 연기되어 아쉬움의 메일을 보냈다.



○이기향(2차 108인)

미술 의상작가로 활동하는 이기향 교수님은 maniO 브랜드 론칭하여 가방을 판매한다.

○이영미(6차 108인)

세미성 주얼리에서 콤마성(KOMMASUNG (콤마[.] + 성[울타리,성곽]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임지은(8차 108인)

4.19~23일까지 마산창동 작가의 향기 갤러리에서 궁중공예의 품격 '임지은의 후수 & 전통매듭전' 세 번째 전시를 가졌다. 이날 8차10인 김혜정 차수장과 안정임 회원이 전시회에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1.4.1~2021.6.30)

김미중	100,000	김선연(9차)	50,000	성민선(3차)	50,000	전영희(8차)	50,000	안애원	300,000
권경희	100,000	김선옥(6차)	500,000	송미원(9차)	200,000	전재성(7차)	100,000	양경운	328,000
권승오	180,000	김선희(후원자)	100,000	손인희(9차)	50,000	장경연(1차)	100,000	우순기	100,000
권화순	50,000	김성림(5차)	200,000	송동섭(회원)	50,000	장대련(6차)	200,000	이경자	200,000
김경미	150,000	김영숙(9차)	50,000	송영숙(8차)	100,000	장명자(8차)	50,000	이지향	150,000
김선옥	100,000	김애주(2차)	100,000	송재영(후원자)	100,000	김다령(8차)	100,000	이순이	225,000
김옥경	180,000	김영숙(2차)	50,000	송주의(9차)	50,000	정승희(9차)	50,000	이영미	500,000
문명하	400,000	김영순(5차)	100,000	송현주(4차)	100,000	정연아(8차)	50,000	이영주	1,000,000
이경자	100,000	김영옥(9차)	50,000	신경숙(9차)	50,000	정유진(3차)	50,000	이용애	55,000
이정자	50,000	김영옥(서울교사불자회)	50,000	신명(2차)	83,000	정미연(9차)	50,000	이정호	200,000
이혜경	180,000	김영희(9차)	100,000	신용원(8차)	100,000	정재선(9차)	50,000	이주연	100,000
임동희	100,000	김영희(회원)	100,000	안석자(회원)	50,000	정재희(9차)	50,000	이태영	100,000
최명숙	150,000	김영희(회원)	50,000	안애원(7차)	100,000	정진희(3차)	50,000	이현숙	400,000
황경자	360,000	김옥주(7차)	50,000	안영란(4차)	50,000	정혜정(9차)	50,000	임동희	100,000
황순덕	100,000	김옥희(5차)	50,000	안은덕(8차)	200,000	조강자(회원)	50,000	임현주	100,000
신지을	60,000	김외숙(2차)	200,000	안재철(후원자)	100,000	조귀자(9차)	350,000	장대련	200,000
황인자	360,000	김외자(5차)	100,000	안정임(8차)	100,000	조명숙(8차)	50,000	정영숙	300,000
		김윤옥(7차)	50,000	안혜경(9차)	50,000	조성자(후원자)	100,000	정은희	10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김민숙(1차)	200,000	안혜숙(4차)	50,000	조수자(회원)	50,000	장진희	200,000
김승기	90,000	김경숙(5차)	100,000	양경순(5차)	200,000	조연(후원자)	30,000	조명숙	200,000
김승주	60,000	김정희(9차)	50,000	양정희(9차)	50,000	조용남(서울교사불자회)	50,000	주찬욱	100,000
김연성	60,000	김종애(9차)	50,000	양채화(8차)	100,000	조은수(2차)	50,000	채상희	100,000
김희정	1,650,000	김주현(8차)	50,000	양현정(9차)	50,000	조정숙(6차)	50,000	황외숙	100,000
문경숙	60,000	김지영(5차)	50,000	어순아(9차)	50,000	조정숙(사무국장)	50,000		
문보람	10,000	김진미(5차)	50,000	오용구(후원자)	5,000	조한옥(8차)	100,000		
문수현	30,000	김향신(후원자)	50,000	오인숙(서울교사불자회)	50,000	조희금(2차)	50,000		
박영숙	60,000	김현지(7차)	100,000	오현정(9차)	50,000	주찬욱(6차)	100,000		
윤정은	30,000	김형민(9차)	100,000	육복연(5차)	100,000	진영희(9차)	50,000		
이지혜	60,000	김혜령(9차)	50,000	왕정임(5차)	50,000	최경분(9차)	50,000		
장기옥	30,000	김혜성(5차)	50,000	원유자(4차)	50,000	최명숙(6차)	50,000		
전주옥	60,000	김혜정(8차)	100,000	윤덕성(9차)	100,000	최성은(2차)	50,000		
조현정	10,000	남동현(6차)	100,000	윤영단(5차)	50,000	최유정(7차)	100,000		
조희원	20,000	남승희(5차)	100,000	윤정로(9차)	50,000	최윤정(9차)	50,000		
한경숙	30,000	노숙령(4차)	200,000	윤정숙(7차)	50,000	최은숙(8차)	100,000		
한정미	300,000	노은희(7차)	100,000	이경자(5차)	100,000	최은희(9차)	50,000		
홍윤진	30,000	류복희(후원자)	10,000	이광숙(9차)	100,000	최찬숙(9차)	50,000		
황화성	50,000	류인숙(5차)	50,000	이두영(후원자)	50,000	최해숙(4차)	100,000		
		맹선영(후원자)	100,000	이명숙(7차)	50,000	최혜경(2차)	100,000		
자비나눔선물 후원		무기명	100,000	이명순(2차)	100,000	추성애(9차)	50,000		
강근자(1차)	100,000	문명하(5차)	100,000	이문희(2차)	50,000	하수경(1차)	50,000		
강미숙(9차)	50,000	문윤경(5차)	100,000	이미숙(9차)	50,000	하지원(6차)	50,000		
강미중(5차)	100,000	미영순(1차)	50,000	이봉휴(9차)	50,000	하진희(5차)	50,000		
강선자(5차)	100,000	민경란(9차)	100,000	이상동(4차)	100,000	한미영(4차)	50,000		
강윤관(후원자)	50,000	민태영(6차)	50,000	이숙자(6차)	50,000	한자경(회원)	50,000		
계미향(8차)	50,000	박 순(1차)	200,000	이순이(3차)	500,000	한혜화(9차)	50,000		
고명수(후원자)	100,000	박경자(5차)	100,000	이순재(8차)	100,000	허정희(4차)	100,000		
고순아(9차)	50,000	박귀원(8차)	100,000	이영미(6차)	50,000	허정희(후원자)	100,000		
고영숙(8차)	100,000	박귀자(후원자)	50,000	이원표(8차)	100,000	홍성예(후원자)	50,000		
곽민서(후원자)	50,000	박문숙(4차)	100,000	이민자(2차)	90,000	홍원숙(8차)	100,000		
(사)날마다좋은날		박민애(9차)	50,000	이재심(8차)	50,000	황경자(8차)	100,000		
(교사불자연합회)	360,000	박인숙(9차)	50,000	이정순(3차)	200,000	황덕순(9차)	50,000		
권봉숙(4차)	100,000	박종근(6차)	100,000	이정호(2차)	100,000	황명자(6차)	50,000		
권승오(9차)	50,000	박종덕(5차)	100,000	이주현(4차)	100,000	황선희(5차)	100,000		
권화순(5차)	50,000	박종명(9차)	100,000	이지원(9차)	50,000	황수경(3차)	100,000		
김 진(2차)	50,000	박진희(9차)	50,000	이후원(후원자)	100,000	황수남(9차)	50,000		
김경선(5차)	50,000	박해순(서울교사불자회)	50,000	이태영(9차)	100,000	황순덕(5차)	100,000		
김경숙(5차)	50,000	박향숙(8차)	50,000	이현영(9차)	50,000	황외숙(4차)	100,000		
김경숙(9차)	50,000	방인덕(8차)	100,000	이혜경(8차)	100,000	황인보(5차)	200,000		
김경자(5차)	50,000	백경임(1차)	50,000	이혜숙(9차)	50,000				
김귀순(7차)	100,000	사기순(4차)	50,000	임동희(4차)	100,000				
김민옥(8차)	50,000	서분옥(후원자)	50,000	임소정(회원)	100,000				
김명순(7차)	50,000	서우림(5차)	500,000	임연선(6차)	100,000				
김문주(9차)	50,000	서울교대불교연합회	10,000	임완숙(2차)	50,000				
김미원(9차)	50,000	서혜정(1차)	200,000	임현주(7차)	50,000				
김보원(9차)	50,000	서혜정(회원)	50,000	정미숙(9차)	50,000				
김복순(2차)	50,000	석진숙(5차)	100,000	장정화(9차)	50,000				
김성리(9차)	50,000	선 경(9차)	100,000	전미옥(회원)	100,000				
김성애(5차)	50,000	성기숙(서울교사불자회)	100,000	전향희(8차)	100,000				
				성민선(3차)	50,000				
				송미원(9차)	200,000				
				손인희(9차)	50,000				
				송동섭(회원)	50,000				
				송영숙(8차)	100,000				
				송재영(후원자)	100,000				
				송주의(9차)	50,000				
				송현주(4차)	100,000				
				신경숙(9차)	50,000				
				신명(2차)	83,000				
				신용원(8차)	100,000				
				안석자(회원)	50,000				
				안애원(7차)	100,000				
				안영란(4차)	50,000				
				안은덕(8차)	200,000				
				안재철(후원자)	100,000				
				안정임(8차)	100,000				
				안혜경(9차)	50,000				
				안혜숙(4차)	50,000				
				양경순(5차)	200,000				
				양정희(9차)	50,000				
				양채화(8차)	100,000				
				양현정(9차)	50,000				
				어순아(9차)	50,000				
				오용구(후원자)	5,000				
				오인숙(서울교사불자회)	50,000				
				오현정(9차)	50,000				
				육복연(5차)	100,000				
				왕정임(5차)	50,000				
				원유자(4차)	50,000				
				윤덕성(9차)	100,000				
				윤영단(5차)	50,000				
				윤정로(9차)	50,000				
				윤정숙(7차)	50,000				
				이경자(5차)	100,000				
				이광숙(9차)	100,000				
				이두영(후원자)	50,000				
				이명숙(7차)	50,000				
				이명순(2차)	100,000				
				이문희(2차)	50,000				
				이미숙(9차)	50,000				
				이봉휴(9차)	50,000				
				이상동(4차)	100,000				
				이숙자(6차)	50,000				
				이순이(3차)	500,000				
				이순재(8차)	100,000				
				이영미(6차)	50,000				
				이원표(8차)	100,000				
				이민자(2차)	90,000				
				이재심(8차)	50,000				
				이정순(3차)	200,000				
				이정호(2차)	100,000				
				이주현(4차)	100,000				
				이지원(9차)	50,000				
				이후원(후원자)	100,000				
				이태영(9차)	100,000				
				이현영(9차)	50,000				
				이혜경(8차)	100,000				
				이혜숙(9차)	50,000				
				임동희(4차)	100,000				
				임소정(회원)	100,000				
				임연선(6차)	100,000				
				임완숙(2차)	50,000				
				임현주(7차)	50,000				
				정미숙(9차)	50,000				
				장정화(9차)	50,000				
				전미옥(회원)	100,000				
				전향희(8차)	100,000				
				성민선(3차)	50,000				
				송미원(9차)	200,000				
				손인희(9차)	50,000				
				송동섭(회원)	50,000				
				송영숙(8차)	100,000				
				송재영(후원자)	100,000				
				송주의(9차)	50,000				
				송현주(4차)	100,000				
				신경숙(9차)	50,000				
				신명(2차)	83,000				
				신용원(8차)	100,000				
				안석자(회원)	50,000				
				안애원(7차)	100,000				
				안영란(4차)	50,000				
				안은덕(8차)	200,000				
				안재철(후원자)	100,000				
				안정임(8차)	100,000				
				안혜경(9차)	50,000				
				안혜숙(4차)					